

플랑크톤 하우스 Plankto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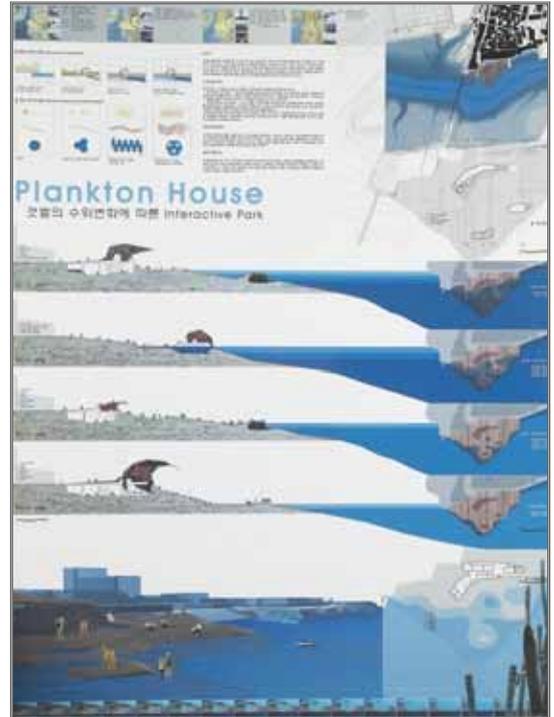
박종대 윤새봄 김정희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의장 연구실 2학기

생태계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의 상호 보완적 공존 모색

현대의 도시와 생태계의 관계는 단순한 생태계의 복원이 아닌 불가피한 도시의 확장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의 시스템과 산업시스템의 상호보완이 필수적이다. 도시를 떠난 생태계와 생태계를 떠난 도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극단적 단절을 보이는 서해안의 해안선과는 다른 생태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위한 인공의 표피를 제안한다.

Nature System : 침식과 범람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조수간만의 차이와 갯벌의 경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인간의 다양한 행위에 주목한다. 생태계의 최소단위이자 1차 생산자인 플랑크톤의 증식과 변이의 시스템을 형태구성에 반영한다.

Industrial System : 최소 단일 구성단위의 반복과 증식 복제를 통해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생태계의 시스템과 병행하여 산업시스템으로 대량 생산된 최소 구성단위의 복제와 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공간을 만들어 낸다.



도심속의 외부공간 Outside Space in Architecture

박준용 | (주)건축사사무소 우진

외부공간을 통한 도시의 상가건축 되돌아보기

직육면체의 틀 속에서 공간을 비우고 채우며 빼고 더함으로서 외부공간을 만들어낸다. 여기서부터 그곳에는 도시의 일상이 시작된다. 외부공간은 그 건물이 가지는 쓰임에 따라 또는 도시환경이나 주변 건물에 따라 직육면체의 틀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 외부공간은 건물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독립시키고 프라이버시를 유지시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각 기능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키면서 건물에 존재하게 된다. 이 장소는 특정한 장소로 지정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시간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될 수 있으며, 어제의 사건이 오늘은 부정될 수 있는 새로운 장소이다. 소위 불확정 장소이며 평면이지만 때로는 경사이기도 하고 언덕일 수도 있다. 건물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도시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길, 공원, 마당같은 여러 도시적 요소가 이 안에 있다. 또한 틈이나 사이공간이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있다.



Artificial Forest under the urban highway

김성원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4학기

이지훈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3학기

임정수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4학기

기존 고가도로 기둥의 비물질화를 통한 Artificial Forest와 자전거 출근자를 위한 복합편의시설

탄천을 지나가는 도시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은 도시에서 탄천을 접하는 시퀀스상의 매개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 가파른 옹벽이 있으며, 그 위로는 거대한 고가도로의 램프가 시커먼 그림자를 드리우며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고가도로를 떠받치기 위한 육중한 기둥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탄천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이 공간을 바라보자. 넓은 강 옆으로 숲이 우거져 있고, 그 뒤로는 도시로 연결되는 산길이 있다. 하늘에는 커다란 천창을 가진 지붕이 있다. 이 천창으로 빛이 쏟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빗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상을 건축화 하기 위해 Artificial Forest를 제안한다. 고가도로의 하부에 새로운 지붕을 만든다. 이 지붕은 도시와 탄천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레벨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관악구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 Animated Urban-Park

황규하 | (주)건축이상 건축사사무소

석재영 |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현 관악구 클린센터는 남측으로는 신림4동 주거지역과 북측으로는 보라매 공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대지는 주거와 휴게시설이 적절히 조합된 도시의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폭 넓은 도로와 전철고가 등으로 인하여 공원과 주거지역 사이, 도시의 연속성에 단절을 가져와 극도로 고립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인프라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접근이 거의 없고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커뮤니티 형성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보라매공원을 환경적(쓰레기 집하장), 물리적(형태적), 심리적(미관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클린센터와 보라매공원과의 물적, 심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공생 관계를 모색하고, 건축행위를 통하여 건축이 사회에 환원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클린센터&자연순환테마전시관을 계획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인간,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들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체험하는 참여프로그램 속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여 도시 인프라 속에 인간과 자연이 느끼는 심리적, 물리적 흐름을 느끼게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람들을 정화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레벨과 월을 통한 청소년문화시설 Disappearing of Wall & Road

김인선 |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4

이 시대의 학교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 굳게 닫혀 있는 담장은 하늘을 찌르고 학생이 아닌 이에게는 너무나 높기만 하다. 점점 교육의 본질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학생들의 자유성, 개별성은 무시된 채 획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의 담장을 허물어주고 사이트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초중고가 모여있는 특성을 고려해 연령별 네트워크와 학부모, 주민들이 학교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변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학교의 외부로 확장을 고려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공간을 학교경계지역에서 일어나게 해 주므로 외부에서 학교 내부로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본다. 열린 학교에 좀 더 다양한 생동감이 부여되길 바라면서...



북성부두 수변공간 Re-Garden

최해안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건축의장연구실 4학기

서윤원 | 인하대학교 건축과 4

이신재 | 인하대학교 건축과 2

대지는 인천의 북성부두 지역으로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바다의 갯벌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사이트로부터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 재설정을 통하여 Re-Garden이라는 도시와 자연이 하나된 텍스처로 보여주고자 한다. 기존의 도시계획이 오브제중심의 편협된 과정이었다면 불이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 하나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대지의 상황이 기하학적인 도시 매립 라인이 자연의 갯벌라인과 충돌함에 주목하여 기존의 경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였다. 이 경계는 이벤트 박스(Event Box)를 삽입하여 새로운 경계를 이벤트화하여 이벤트화된 영역 자체가 영역으로서의 경계가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프로그램은 Fish Mall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벤트 박스가 어시장, 갤러리, 극장, 공원, 정원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이벤트가 자연과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벤트 프로그램으로서 자연과 도시의 경계를 이벤트를 통해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의 영역 자체가 자연과 도시의 매개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